

# '빚내서 집 사기' 더 어려워진다

## 3월부터 투기지역 주택대출 규제 강화

### 12월에는 전국 모든 주택에 적용

다음달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담보대출 때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택 마련 수요자들은 빚내서 집을 사기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DTI 40~50%가 적용된다.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 40%가 적용되며,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면 50%가 적용된다. 대출금이 5천

만원 이하이면 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거처가 없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나 고정금리를 선택할 경우 5%포인트씩 한도가 늘어나지만 최대 60%를 넘지는 못한다.

또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5%포인트가 늘거나 줄 수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각종 소득 증빙 서류가 아니라 자기신고 소득 등 인정소득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도 DTI가 5%포인트 줄어 들 수 있다.

자기신고 소득은 신용카드 매출액, 은행 입금내역, 국민연금 납입 영수증 등 공식적인 소득 입증 자료는 아니지만 실

질적인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소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TI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증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며 "대출한도를 늘리려면 공식적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하고 신용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하반기부터는 투기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중도금 집담대출(아파트가 들어설 때 주민들이 특정은행과 약정을 맺고 집담으로 대출을 받는 것)에도 DTI 60%가 적용된다.

현재는 투기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초과 아파트의 집담대출에만 DTI 40%가 적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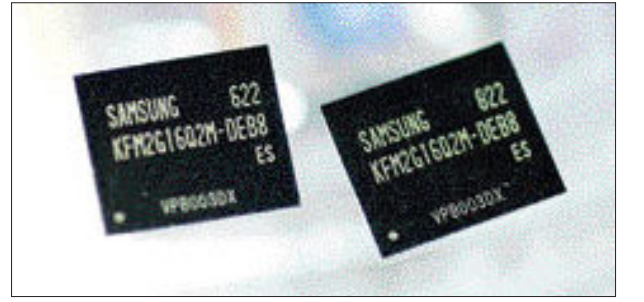
이 같은 주택대출 규제는 단계적으로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3월 투기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대한 DTI 규제, 7월

#### ■ 확대되는 DTI 규제

지역	투기지역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현재와 같음	현재와 같음	전국으로 확대	전국으로 확대
대상	시가 6억원 이상 아파트 신규 구입자금	시가 6억원 이상 아파트 신규 자금 + 3개월 경과 기존 아파트	6억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집담대출	3억원 초과 아파트	아파트 외 연립, 단독 등 모든 주택
적용비율	40%	대출금액 1억원 초과 40% 대출금액 5000만원 초과~1억원 미만 50%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음			
비고	담보인정비율(LTV)과 비교해 비율 작은 쪽 적용	고정금리 선택시 5%P 추가 원리금 분할상환 선택시 5%P 추가 신용등급에 따라 +5%P 소득증빙 못하면 -5%P			

#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그래픽 메모리 개발

## 삼성전자, 신형 512Mb GDDR4



삼성전자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그래픽 메모리를 개발했다.

삼성전자는 26일 기존 그래픽 메모리에 비해 정보 처리 속도를 65% 이상 향상시킨 신형 512Mb GDDR4(Graphics Double Data Rate version4) 메모리 칩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새롭게 개발한 신형 GDDR4는 1초에 4Gb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존에 상용되고 있는 GDDR4는 1초당 2.4Gb를 처리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신형 그래픽 메모리 생산에 80나노 회로 공정을 적용했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메모리 샘플을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에 배포하기 시작했으며, 본격적인 양산은 하반기에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신형 그래픽 메모리를 적용하면 애니메이션의 동작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고 컴퓨터 게임과 그래픽 디자인 프로그램 등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 ■ 고소득 전문직 탈세 실태

국세청이 26일 발표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는 변호사, 의사, 학원 등 일부 자영업자들의 지능적인 탈세가 일반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온라인 게임아이템을 팔면서 타인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소득을 숨기려한 사업자 등의 사례는 매우 지능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절반 탈루=국세청은 지난 1~4차 조사를 통해 탈루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업종을 대상으로 5차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결국 5차 세무조사 대상자 315명은

현직인 수천명을 고용, 리니지 등은 라인 게임을 하도록 시킨 뒤 이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국내 게임 이용자에게 판매하도록 하고 판매액 전액은 자신의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숨겼다.

◇성형외과 11억원 탈루=서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안모(39)씨는 비보험 대상 진료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현금결제하면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수법으로 수입액 6억원을 탈루한 것을 비롯해 광고선전비 등 경비를 부풀려 총 11억원의 소득을 줄여 신고했다.



하우징브랜드페어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2007 하우징브랜드페어'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원목 건축자재 전시부스를 돌아보고 있다. 지난 25일 개막된 이 행사는 3월 1일까지 계속된다. /연합뉴스

# 대부분 절반은 숨겨

## 주택분양업자 187억 탈루도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의 탈루 유형을 망라한 셈이다.

이들중 현금 수입업종에 포함된 유흥업소의 경우는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등 갖은 명의변경을 통해 탈루를 시도하는 사례가 많고 스포츠센터, 학원, 음식점 등도 과세 인프라이에서 잘 잡히지 않는 현금 수입분을 소득에서 누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 등의 경우도 비보험 진료료가 많고 현금 수입분이 많아 사각지대로 꼽히며 같은 이유로 법인보다는 개인과의 거래가 많은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등도 국세청이 신경 쓰는 전문직종이다.

◇인터넷 게임판매업자에 109억원 추징=이번 조사 결과 온라인 게임아이템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사업자인 이모(55)씨는 중국에서

학원업자인 이모(51)씨는 개인명의 계좌를 통해 수강료를 현금으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15억원을 누락 신고했으나 고가의 부동산 취득과 이자소득 발생 등으로 꼬리를 잡혀 11억원을 추징당했으며 포탈세액에 준하는 벌금도 부과받았다.

주택분양업자 김모(47)씨는 서울에서 100평형 고급주택 15채를 신축, 분양하면서 동호인들이 직접 땅을 사 주택을 취득한 것처럼 처리해 분양수입액 187억원을 누락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또 부동산 시행업자 이모(45)씨는 시공사인 A건설사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공으로 계산한 공사원가 93억원의 A사 계좌에 입금한 뒤 종업원 등 명의로 다시 받아내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 “작년 산업대출, 부동산 투자에 전용”

### 韓銀 발표 대출금 동향

지난해 예금은행의 산업대출금 증가 규모가 3년만에 가계대출 증가액에 능가했지만 산업대출 증가액의 상당 부분이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집중됐다.

특히 부동산가격 급등과 맞물려 부동산 산업에 대한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영위하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에도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져 산업대출금이 편입으로 부동산 투자에 전용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중 예금은행의 산업대출금 동향'에 따르면 작년말 예금은행의 산업대출금 잔액은 353조2천80억원으로 1년새 44조7천991억원이 증가, 같은 기간 40조7천84억원이 늘어난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추월했다.

산업대출금 증가액이 가계대출 증가액을 능가한 것은 2003년 이후 3년만에 처음이다.

이처럼 산업대출금이 크게 늘었으나 제조업 시설투자액보다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운전자금 용도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산업대출 증가액 가운데 60.3%에 달하는 27조322억원이 서비스업에 집중됐으며 건설업도 18.0%에 해당하는 8조521억원이 몰렸다. 서비스업 대출 증가율은 18.6%였으며 건설업 대출 증가율은 32.9%에 달했다.

이에 비해 제조업 대출액은 9조9천688억원이 늘어 증가율이 8.3%에 그쳤다. 산업대출금 증가액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29조9천741억원이 운전자금용이었으며 시설자금은 14조8천250억원이었다.

# 한은 적립금 고갈...“대비책이 없다”

### 최근 3년 막대한 적자

한국은행이 최근 3년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익잉여금으로 쌓아둔 법정적립금의 소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정부나 한은 차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외환보유액 규모가 2천400억달러에

달하면서 내외금리차와 환율변동에 따라 한은의 수지 규모가 수조원단위로 급변할 수 있는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한은은 회계연도마다 법인세 납부후 순이익의 10%를 법정적립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부의 일반세입으로 납부하게 돼 있다.

적립금은 10%를 초과해 쌓을 수도 있

으나 이를 위해서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2000년 이후 정부가 이를 허용한 적이 없다. 한은이 흑자를 내면 적립금 규모가 커지지만 적자를 낼 경우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도록 돼 있다.

한은의 적립금은 한때 5조9천억원에 달했으나 2004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현재 적립금규모는 2조151억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 국가 연구개발 예산 10조 돌파

### 과기부, 내년 전망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엔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6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의 R&D분야 중기사업계획(2007~2011년)에 나타난 내년 R&D예산 요구액은 모두 11조5천3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국가 R&D예산 9조7천629억원에 비해 무려 18.2%나 증가한 것으로, 국가발전의 동력을 과학기술에서 찾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R&D예산 요구액은 정부예산으로 최종 확정되기까지 정부내 예산조

정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소 삭감될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내년 R&D예산은 10조원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도별 R&D예산 요구액을 보면 내년 11조5천억원에서 2009년 12조8천억원, 2010년 13조9천억원, 2011년 15조2천억원으로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11.7%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 기관별 5년간 R&D예산 요구액 증가율을 보면 소방방재청이 46.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보건복지부 23.5%, 해양수산부 22.9%, 방위산업청 20.2%, 문화관광부 17.9%, 농림부 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미감일	연락처
광림직업전문학교	[실내건축/정보처리분야] 정규직 교사채용공고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7	062-529-3000
신원유희회	품질관리 남/녀 정규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7	062-944-8485
우리캐피탈	우리캐피탈 - 호남본부 여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2/27	010-2328-3030
뉴모텍	전산(ERP) 및 총무업무 채용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2/28	062-601-0812
미래세계	[SK텔레콤/주5일] 114/CRM 상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2/28	062-383-1756
아이윌코리아	<폭스존> 일반사무원 및 인포메이션 사원모집	초대졸/경력1년	1400-1600	02/28	062-611-8294
기전산업	자동차 부품 조립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2/28	062-529-3003
동천미디어	V.J. 카메라(정규사원) 채용공고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1	062-224-5401
제니엘광주지사	[SK 휴대용 광주지점] 매장관리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3/02	062-514-2928
광주광역시청	[서울근무] 프로그래머 경력사원 채용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3/02	062-224-8564
모두모이여행문화원	사무관리 여사원 모집	회사내규	03/05	062-236-1800	
포토양주	고객지원 및 촬영보조 여직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5	062-222-0948
코팩스	(주)코팩스 2007년 상반기 정규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5	061-333-8668
점세대자통화시스템	[이공계 취업준비생] 현장연수사원 연수생 모집	대졸/경력무관	국비지원	03/05	062-530-0451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 조석래 효성회장 전경련 회장 유력

## “회장단 전원 합의추대 땀 수룩”

차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에 추대될 것으로 유력시되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회장단 전원의 합의추대'가 이뤄질 경우 이를 수락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조건호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26일 밝혔다.

조 부회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제4단체의 재외공관장 초청 오찬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로부터 차기 전경련 회장 선출 문제에 관해 질문을 받고 "회장단의 의견이 모아지면 강신호 현 회장이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